

# 고흥, 농수특산물 마케팅 강화한다

브랜드 캐릭터 '노랭이' 선포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오픈  
5년 이내 직거래율 15% 목표  
이달 말까지 적립금·경품 증정

고흥군이 최근 군 통합브랜드 캐릭터 '노랭이' 선포와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오픈을 기념해 '고흥 농수특산물 온라인 마케팅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수 김유선, 고흥군 청소년 댄스팀의 축하 공연과 유명 유튜브 미

기의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채널과 온라인 화상프로그램(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됐다.

온라인 행사 라이브영상은 고흥군 공식 유튜브채널 '고흥군TV'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및 축사를 생략하고 송기근 고흥군수가 직접 '노랭이'와 '고흥몰'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송기근군은 발표에서 "최근 캐릭터가 상품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노랭이'를 고흥군 통합마케터로 활용해 고흥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5년 이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율을 현재 2.8%에서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고흥몰'을 키워갈 것"이라고 농수산물 마케팅 비전을 제시했다.

고흥몰 입점업체 A씨는 "생산업체인 우리가 할 일을 고흥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감사하고 제품이 없어서 못 팔 만큼 고흥몰이 흥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몰이 마중물이 되어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 고흥으로 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다운 것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수특산물을 비롯해 관광, 체험, 숙박을 포함한 고흥군의 모든 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새로운 통합마케터 '노랭이'와 '고흥몰'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몰'은 400여 개 품목 84개 업체가 입점했으며, 정식 오픈과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신규가입 시 5,000원 적립금을 주고 경품도 증정한다. 전 품목 무료배송과 15%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 여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잔결음

국토부 국고보조사업 선정  
교통 편의·안전 향상 기대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4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여수시는 내년부턴 2년간 국비 48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에 나선다.

여수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과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교통정보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관광, 화물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할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인 ITS 구축 사업은 교통 혼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로, 차량, 신호 시스템 등 기존 교통체계에 AI, 센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통시스템이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에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주요 교차로 구간 교통정보 수집·제공하는 노변 기지국 설치 ▲교통정보센터 통합운영 단말 개선 및 환경개선 ▲좌회전 감응 신호 시스템 10개소, 스마트교차로시스템 35개소, 차량검지기 10개소 확대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급급차, 소방차의 위치를 위상향법시스템으로 추적해 차량의 이동 경로에 있는 교차로 신호등을 모두 녹색 신호로 바꿔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공주시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옥수수 상품개발 창업 지원  
판로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

여수시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섬섬여수 옥수수 상품개발 창업 지원으로 가공제품 다양화와 청년과 여성의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한 카페에서는 옥수수 모양의 빵 속에 옥수수 알갱이와 치즈가 들어 있는 고소한 빵과 옥수수 식혜를 맛볼 수 있다. 웅천동에서는 옥수수 알갱이가 특색 터지는 천연발효 빵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다.

두 곳 모두 향토산업 육성 '여수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의 하나로 여수시에서 상품개발 창업지원을 받은 곳이다.

여수시는 여수지역에서 재배되는 찰옥수수로 만든 알갱이와 분말을 활용해 옥수수빵, 식혜, 라떼, 쿠키 등 제품개발과 상품화, 판매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옥수수 상품개발 창업지원 계획을 공모해 1차 자격요건 확인과 2차 현장조사 면담 및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최종 2명을 선정해 상품개발 재료비, 기자재 등 1명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여수산 찰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라떼와 쿠키 등 다양한 제품을 추가로 개발, 상품화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옥수수 상품개발 창업지원을 통한 제품의 다양화와 인프라 확대로 옥수수 산업 활성화와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며 "상품화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전통시장 민생탐방

권오봉 여수시장이 13일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순천,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 동참

22일까지 SNS 인증 이벤트  
전국 랜드마크 33곳서 진행

순천시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과 동천 출렁다리에서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든다'를 펼친다.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그린라이트 캠페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격려, 몇 년씩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이 초록빛 희망으로 물든다'라는 주제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주관하며 13개 지자체와 6개 기업이 참여해 전국 주요 랜드마크 33곳에서 진행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다. 오는 22일까지 초록빛이 점등된 캠페인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SNS를 팔로우해 필수 해시태그(#생명나눔그린라이트캠페인, #생명나눔응원해요, #장기기증)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면 참가자 8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순천시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국,

병원 등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순천시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9월 현재 2만2,343명으로 전남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그 시작을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이 함께한다"며 "이번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명나눔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고품질 쌀 유통 공모 선정  
풍양농협, 사업비 24억 확보

고흥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풍양농협이 최종 확정돼 국비 7억2,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수확기 판로 확보 및 편의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풍양농협협동조합

은 순환식 건조시설 30톤 4기와 저장시설인 사일로 500톤 2기, 저온저장고 100평 1동, 지게차 1대, 벼 수매 통 100개 등을 내년부턴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군 농협 읍·면별 권역 중 유일하게 건조저장시설이 없었던 풍양농협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벼 건조·저장시설을 구축하게 됐다. 대규모 추곡 산물수매 시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경영비 절감과 원료곡 변질 예방은 물론 장기간 대기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흥쌀이 우리나라 고품질 브랜드 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운영 순항

평년대비 탑승률 3배 ↑

순천시가 지난 3월 무상인수한 후 운영하는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며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스카이큐브 재개장 이후 8월 말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객 54만5,537명 중 7만2,920명이 스카이큐브를 이용해, 탑승객 비율은 12.7%로 기존 평균 탑승률 5.3%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조례 개정으로 무료입장자와 1년권 소지자,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가 순천만국가정원 입구에서 매표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선별권 할인 제도를 실시한 이후 입장객 대비 탑승률은 16.1%로 평년대비 3배 증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운영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탑승률 증가에 따라 수치 개선이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광양소방서,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광양소방서가 최근 장애인생활시설인 광양매화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양소방서는 ▲심정지의 원인 및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소생술 순서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조 및 사용방법 ▲심장중격

기 사용 시 주의사항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별쓰임 대처방법 및 예방 등 여러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교육했다.

광양매화원 송주희 담당자는 "광양매화원은 장애인들의 의·식·주를 지원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아 유익했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순천 유학생할 '서울교육' 책자에 게재

순천교육지원청이 서울에서 순천으로 유학 온 주선호 학생의 어머니가 농촌유학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쓴 글이 '서울교육'이라는 책자에 실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에서는 농촌유학을 결정하기 위해 고심했던 마음,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순천의 농촌살이를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사연 등 서울에서 경험하지 못한

낯선 농촌 생활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이영덕 순천교육장은 "농촌 생활이 대도시 생활보다는 불편하고 낯설 수밖에 없겠지만 교육 측면에서는 순천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적의 교육 장소인 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벗 삼아 즐겁고 행복한 농촌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여수 화양면 지사협, 행복꾸러미 전달

여수시 화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저소득가정 60세대에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복꾸러미 사업은 연합모금 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정에 식료품 등을 전달한다. 올해는 총 18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60세대, 9월에 60세

대를 지원했으며 남은 60세대는 추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만균협의회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저소득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